

# 국내외 예술계 등 14만명 다녀가 '순항'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개막 한달

지난 9월 7일 개막한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이 개막 한 달을 맞았다.

43개국 165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을 선보이는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은 광주 시민과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 등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순항중이다.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개막 이후 2018광주비엔날레 관람객 수는 13만 8000명(7일 기준 잠정 집계)으로 집계됐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개막 한 달을 기념해 네이버 예매 예약을 통해 구매하면 할인 혜택(1만4000원 티켓 1만1000원 구입)을 주는 이벤트를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각계각층과 문화예술계의 발길이 한 달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 후미오 난조 모리미술관 총괄 디렉터, 멜리사 라리프 시드니비엔날레 큐레이터, 몽블랑 재단 이사회 의장, 토요타 시립미술관 큐레이터를 비롯해 요코하마, 베를린, 바르셀로나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등이 다녀갔다.

12회의 국제 행사를 치른 광주비엔날레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화예술 기관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주국

네이버 예매 할인 등 내일까지 이벤트 진행  
청주·부산 등서 벤치마킹  
미·영·독 일간지 기사 게재

공예비엔날레 관계자와 청주시의원, 부산 비엔날레 관계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다녀갔으며 한국국제아트페어를 방문한 미술계 VIP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찾았다. 이밖에 지난달 28일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광주비엔날레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시를 감상했으며,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400여 회원들도 다녀갔다. 앞으로 오월 어머니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연세대 여성 고위자 과정 등 각계각층의 광주비엔날레 관람도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6일 개막식 당시 다녀간 미국의 대표 예술지 아트 포럼을 비롯해 아트 리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레마네 차이퉁 등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다. 파이낸셜 타임즈(9월 28일 자)는 "2018광주비엔날레는 주제를 다각도에서



지난 9월 7일 개막한 2018광주비엔날레 전시에 한달 동안 14만여명이 찾은 등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해석하고 시각화하면서 7개 전시가 이루는 전체적인 주제의식과 완성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평을 실었다. 프랑크푸르트 알레마네 차이퉁(9월 20일 자)은 광주비엔날레를 '아시아의 도큐멘타'라고 언급했으며 아트아시아퍼시픽(9월 12일 자), 아트인포(9월 26일 자)는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재단은 다양한 워크숍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광주와 전남지역 미술교사 200여 명을 초청해 미술교사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일선 학교에서의 단체 관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충남 부여초, 제주 중앙여고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관람이 이어졌으며 중앙대 등 전국의 미술학과 관련 학생들의 탐방 필수코스도 자리잡았다.

오는 11월 11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티켓 한장으로 관람 가능)에서 메인 전시가 진행되며 옛 국군광주병원등에서 열리는 GB커미션, 시민화관 등에서 만나 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문의 062-608-42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만나다

11일 허원숙 피아노 독주회

피아니스트 허원숙(사진)이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바흐의 음악만으로 채운 독주회를 갖는다.

'근원의 발견, 바흐의 본질을 꿰뚫다'라는 주제를 지닌 이번 연주회는 허원숙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 발매를 기념해 열린다.

발세시아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녀는 호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금호문화재단 금호스페셜콘서트 시리즈와 '허원숙의 피아노 이야기' 등 여러 연주회를 열어 관객을 만나고 있다. 독주회 실황을 담은 다수의 음반을 낸 그녀는 KBS 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에 고정 출연하고 '가정음악' 음악작가를 맡는 대중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무대는 바흐의 토카타로 첫 발을 댄다. '토카타 라단조 작품번호 913'과



'사단조 작품 915'를 통해 바흐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 푸가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부조니가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바흐-부조니 사콘느'를 무대에 올린다.

2부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장식한다.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된 곡중에서도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이 작품은 바흐의 역작으로 꼽힌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빛고을국악전수관 개관 16주년 국악한마당

11일 대금 원장현 명인 출연

광주시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개관 16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후 4시 특별기획 국악한마당을 연다.

먼저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1부 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에는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 고블,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8개 부문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공로패와 모범상패 수여 행사가 진행되고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의 가야금연주가 이어진다. 이날 공연은 대금연주자 원장현 명인이 대금산조, 소쇄원, 날개 등을 연주하며 끝을 맺는다.

서은문명란 전국 시낭송대회 성료

영예 대상 임경화씨

지난 6일 열린 제1회 서은문명란 전국 시낭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은문명란 연구소(이사장 황일봉) 주최로 동구문화센터 5층 아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시낭송대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넘는 낭송가들이 몰려 열린 경쟁을 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녹음 파일과 참가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대회는 예심을 거쳐 35명이 본심에 진출했다.

영예에 대상에는 임경화 씨가 선정됐



원장현 명인

서은문명란 연구소(이사장 황일봉) 주최로 동구문화센터 5층 아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시낭송대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넘는 낭송가들이 몰려 열린 경쟁을 했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아울러 문명란시 낭송대사로서의 자격도 주어진다.

이번 시 낭송대회는 공혜경 낭송가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공광규 시인, 장연익 배우, 임경섭 동신대 교수, 최경천 전 광주KBS야나운서부장 등이 맡았다.

문의 010-6834-7400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 행진곡' 주제 교향시 '민주' 무대에

광주시향 오늘 광주 연주회

이번주 서울·일본 도쿄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337번째 정기연주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교향시 '민주'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주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님을 위한 심포니' 공연이다.

지난 5월 '님을 위한 서곡'과 '민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민주의 노래', '5월, 광주'가 연주됐으며 이번 공연은 10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거쳐 12일 일본 파르테네 타마홀 무대에도 오른다.

김홍재 시향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무대는 오월 광주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김대성씨가 작



광주시향이 지난해 오스트리아 부르크너 하우스에서 펼친 공연 모습.

곡한 관현악곡 '민주'로 시작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이견용을 사사한 김씨는 광주문화재단의 위촉을 받아 작곡에 참여했다.

이어 시향은 일본 피아니스트 콘도 요시히로와 '크렐린의 종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18'을 무대에 올린다. 빈현 국제



피아니스트 콘도 요시히로

작품88'로 무대를 장식한다. 이 곡은 드보르작이 자신의 고향 프라하 네라호체베스로 돌아가 별장을 짓고 살면서 만들었다. 자유로운 형식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초연 당시 '전원 교향곡'이라 평가받기도 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음악공률 준결승에 오른 요시히로는 도쿄 카잘스 홀 등 일본의 주요 공연장과 뉴욕 카네기, 빈 뮤직헤라인 콘서트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88'로 무대를 장식한다. 이 곡은 드보르작이 자신의 고향 프라하 네라호체베스로 돌아가 별장을 짓고 살면서 만들었다. 자유로운 형식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초연 당시 '전원 교향곡'이라 평가받기도 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